

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

김영찬기자 | 승인 2024.09.05 17:42 | 11면

의령 복지마을 소망의 집 기부금 전달



▲ 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는 민족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의령 복지마을 소망의 집을 방문해 위문금(온누리상품권)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. /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

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(지사장 이주헌)는 민족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의령 복지마을 소망의 집을 방문해 위문금(온누리상품권)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.

또한 소망의 집 김민정 원장으로부터 시설 운영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, 기관 간 협조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논의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.

이주헌 지사장은 "민족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지역의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풍요로운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작은 도움이나마 위문금을 전달하게 돼 기쁘

다”며 “앞으로도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로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다”고 전했다.
김영찬기자

저작권자 ©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



김영찬기자